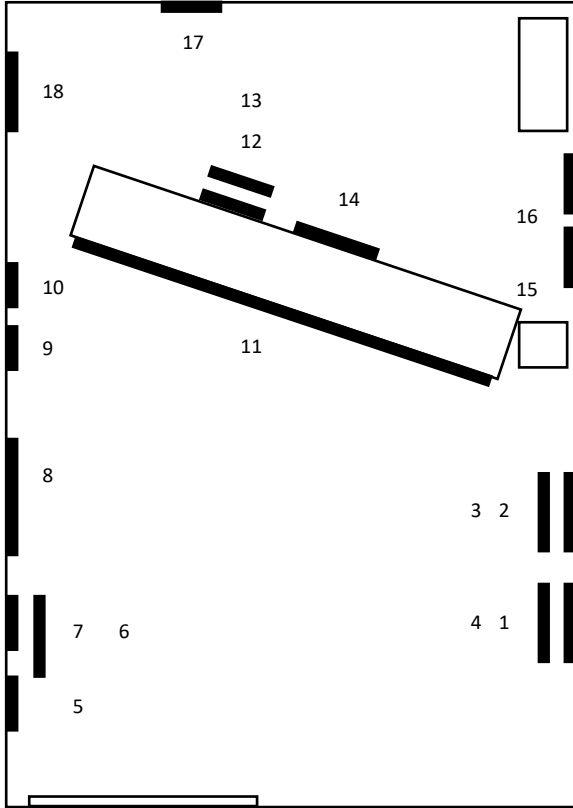


김화현, 송지혜, 이셋별: 얼굴을 건너는 방법

2024.06.29—2024.07.17



01. 송지혜, 여름1, 2024, oil on canvas, 53x45.5x4cm
02. 송지혜, 여름2, 2024, oil on canvas, 53x45.5x4cm
03. 송지혜, 여름3, 2024, oil on canvas, 53x45.5x4cm
04. 송지혜, 여름4, 2024, oil on canvas, 53x45.5x4cm
05. 김화현, *Foreign Classics*, 2024, 순지에 수묵 채색, 32.5x45.5cm
06. 김화현, *This Tiny Asian Woman*, 2022, 순지에 수묵 채색 및 유리예  
합성 안료, 65x50cm
07. 김화현, *The Pagan Classics*, 2023, 순지에 수묵 채색, 32x58cm
08. 김화현, *They Are Deceived*, 2023, 순지에 수묵 채색, 58x83cm
09. 송지혜, 여름6, 2024, 종이에 과슈와 연필, 30X21cm
10. 송지혜, 여름5, 2024, 종이에 과슈와 연필, 30X21cm
11. 이셋별, 뽀뽀, 2024, oil on canvas, 180x230cm
12. 이셋별, 불타는 토끼, 2022, oil on canvas, 33.4x24.2cm
13. 이셋별, 숲의 주름, 2022, oil on canvas, 33.4x24.2cm
14. 이셋별, 복숭아씨, 2023, oil on canvas, 40.9x31.8cm
15. 이셋별, 이모지 휴먼 13, 2024, oil on paper, 74x54cm
16. 이셋별, 이모지 휴먼 14, 2024, oil on paper, 74x54cm
17. 이셋별, 이모지 휴먼 15, 2024, oil on paper, 74x54cm
18. 김화현, *Silver/Rain*, 2023, 순지에 수묵 담채, 65x60cm

작가 소개

김화현(b.19xx)은 서울 출생으로, 동양화 기반의 회화에서 출발해 영상, 설치, 전시기획, 출판 등 다양한 매체-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회화는 전통 동양화 재료와 기법을 바탕으로 미술사적 레퍼런스와 동아시아의 서브컬처를 혼용해, 기존의 서구-남성-이성에 편향적인 주류 미술을 “다시쓰기” 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즉 원전의 “2차 창작물”을 만드는 셈으로, 일종의 “대안-미술사”를 제시한다. 이 실천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안-명작”들과, 이를 발표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젠더, 오리엔탈리즘 및 동시대 한국 사회의 의제들에 대한 담론을 유도한다. 서울대학교에서 미술학사(동양화)와 문학사(한국미술사) 학위를 취득한 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도미, 메릴랜드 미술학교(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에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귀국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화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0여 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 초대전에 참여하였고, 서울시립미술관과 미국 스펜서 미술관(Spencer Museum of Art)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송지혜(b.1980)은 사회라는 거대 체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가리고픈’ 감정, 시선 등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누군가의 인생의 한 컷을 포착한 장면은 공허한 부재와 불안을 담고, 아슬아슬한 경계 그 사이에서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보듯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곳곳을 매우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그 경계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낮과 밤사이로 빛대어 표현하여 삶의 이면 너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담는다. 한 화면 안에 여러 시선과 시공간을 교차하여 현실과 비현실 그리고 인간의 여러 감정을 한 화면으로 구성한다. 주요 개인전으로 인가회갤러리 <낮과 밤사이에서>(2023), 룬트갤러리 <금단의복숭아>(2021)와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대롱대롱>(2018)이 있다. 서울시청 박물관과, 성남문화재단과 중국상원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이셋별(b. 1970)은 인물과 풍경을 통해 보이는 서사와 삭제된 이야기를 상상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다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인공과 자연, 생태적 위기와 자본주의 모순, 디지털 사회의 주체 등 동시대의 인간의 고뇌와 윤리적 질문을 탐구한다. 1998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2002년 동대학원 졸업했다. 갤러리 에스피 <글리치 파라다이스 Glitch paradise> (2024, 서울)을 비롯하여 총 17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대구미술관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2024, 대구), 부산현대미술관 <진속한, 기이한> (2022, 부산), 국립현대미술관 <현대회화의 모험: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2019, 청주), 청주시립미술관 <아직 살아있다>(2018, 청주), 경기도미술관 <약동들 지금\_여기>(2009, 안산) 등이 있다. 대구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부산현대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성남큐브미술관과 사비나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 김화현, 송지혜, 이솟별: 얼굴을 건너는 방법

2024.06.29—2024.07.17

'얼굴 (face)' 은 흔히 인간의 머리 앞쪽 부분인 이마부터 턱 까지를 지칭하지만, 조선시대 초까지 몸 전체를 가리키는 '겉모습'이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얼굴은 사람의 평판을 뜻하기도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얼굴을 건너는 방법> 전시는 눈으로 보여지는 '상像' 너머의 시선을 담은 김화현, 송지혜와 이솟별의 회화 작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김화현의 <Foreign Classics> (2024)는 서구식 미의 기준으로 표현된 한국 순정 만화와 고대 그리스 로마 조각상 데생으로 입시를 준비한 여성으로써, 작가의 미적 기준에 대한 의심과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술대학 입학 당시, 아버지의 책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리스 미술 책에서 본 한 도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청동으로 된 고대 그리스 청년상 도판은 작가에게 무의식적으로 미의 표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작가는 순지에 분채 기법으로 '고대 그리스 청년상'을 묘사하고, 페인팅 위부분은 좌우가 바뀐 'Greek Art'을 몽겨지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작가가 고대 그리스의 청동상의 보여지는 '겉면'을 표피적으로 '미'의 기준으로 받아들여, 문화적 정체성과는 거리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지혜의 <여름> 시리즈 (2024)는 마치 창 너머의 다른 세상을 표현하는 듯, 화창한 여름날의 하늘과 실내의 밤풍경이 교차하는 시선이 담긴 회화 작품입니다. 지난 12월, 작가는 한겨울인 한국에서 건조하고 따듯한 날씨가 일년 내내 계속되는 바레인으로 이주했습니다. 상반되는 날씨와 낮선 풍경 안에서 송지혜에게는 한국보다 더 가깝게 잡힐듯한 바레인의 하늘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작가는 (자신의 존재는 감춘 채) 창밖을 통해 바라본 시시각각 변화하는 하늘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바레인의 브리티쉬 커뮤니티 안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이웃과 마주한 작가는 같은 하늘 아래 교차하는 삶의 이야기를 '낮과 밤'의 간극으로 보여줍니다. '여름'시리즈에서는 12월의 따스한 '여름'으로 묘사되는 낮의 하늘과 어둠이 드리우면 삶의 존재를 드러내듯 조명이 켜지는 밤의 실내 풍경이 서로 교차합니다. 또한 '겉'으로 고요해 보이지만 같은 하늘빛 아래, 차로 하루면 닿는 팔레스타인 전쟁지역의 긴장감과 안전지역인 바레인에서 느낀 찰나의 평온함을 넘나드는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솟별의 <이모지 휴먼 Emoji Human>(2024)은 판화지에 오일 페인팅으로 속도감 있게 그려낸 허구적인 인물상 시리즈입니다. 스케치 하듯이 큰 붓터치로 단시간에 묘사된 인물들은 토끼귀를 가지고 있으며, 동공없이 묘사된 두 눈은 한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듯 보입니다. 토끼귀를 한 인물상은 이솟별의 작품에서 2009년부터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화 된 소재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이모지 휴먼>의 토끼 이미지는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된 기호의 일종인 '이모지'를 통해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등의 단순한 감정과 정보를 전달하는 획일화된 (이모지) 인물상을 묘사합니다. 이들은 디지털화 세계에 스며들면서 사라져가는 표피적인 인간의 상像을 의미하고, 사유가 결여된 허상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모지 휴먼>은 실제 마주보며 서로의 얼굴의 표정을 읽고 사고를 교류하기보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이 만들어낸 '이모지'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익숙한 현대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모지 휴먼>에서 작가는 평평한 디지털 이미지가 아닌 "격정적인 붓질"로 인해 생긴 오일 물감의 질감을 화면에 표현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의 흔적"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얼굴'이라는 주제는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나 자신을 누구로 상정하는가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각종 서류상으로 나는 대한민국의 여성이다. 그러나 내가 화면 위에서 수시로 조형적 결정을 내리는 나의 기준은 그렇게 간단히 설명되지 않는다. 나는 아마도 내가 보고 자란 출판만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입시~대학교육을 통해 수혈받은 서구식 "조화" "균형" "아름다움"—근대 일본을 통해 서양에서 수입돼 토착화한—을 착실히 내면화한 것도 같다. 그래서 동양화 전공자로서, 상당히 자주, 나는 "한국인"인 척 해야 한다는 기분이 든다(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시에서는 그간 "한국인" '여성'이 왜 (굳이) 이런 걸 그리나?"라는 추궁을 받을까봐 감추거나 생략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냥 드러내 보고자 했다. 마치 과거의 한 시점에서 다른 갈래로 전개된 평행-역사에서 온 사람처럼, 잠시나마 갖은 내/외적 검열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 듯한 기분으로 그렸던 그림들을 모아두고 보면,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김화현

'낮과 밤' 혹은 '해와 달'은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다. 보여지는 상황 뿐 아니라 그 너머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체 밖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오만가지의 현실에 시선들이 곳곳에 머무른다. 캔버스에서 과감하게 생략된 이미지들은 마치 은폐된 진실 가려진 현실처럼 궁금증과 호기심 긴장감을 자아낸다. 이를 현실인 듯 비현실인 듯 여러 시선과 시간을 교차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그 배경인 사회와 세계가 작업의 근간이다. 불안정한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사물과 풍경을 통하여 상상하고 시각화하고 있다. 현실에 대하여 시니컬하게 반문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하기도 하며,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때로는 관조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극도로 가까운 시각으로 관찰하기도 한다. 이를 근거리 혹은 원거리에서 대상을 관찰하여 개개인의 내면의 모습에 초점을 두어 들여다보기도 하고 전체적인 모습으로도 바라보기도 한다. 일부분을 포착하여 전체를 유추하는 표현이거나 현실과 비현실을 혼합하여 개인과 사회 그 거리감을 감정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아가 거대한 세계 속에서의 개인의 존재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공간이나 사물에 다양한 시선과 상상력을 더하고자 한다.

-송지혜

<윙윙> 꺾인 풀들 사이로 바다는 흐린 향을 피우고 우리 삶은 날날의 바람처럼 쉽게 사라진다. 바닷가 모래톱 뒤 윙윙 나는 별들의 소리가 시간을 부드럽게 과거로 이을 때, 불현듯 등장한 검은 픽셀이 환영을 깬다. 뜻하지 않은 이 중지의 찰나는 어느 시인이 말한 '모두가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은' 시대의 비명이며, 그럴듯하게 봉합한 현실의 풍경이 균열하는 순간이며, 전혀 다른 논리의 다양성이 넘실거리는 세계에 대한 발견일 것이다

<이모지 휴먼> SNS에서 우리는 '좋아요'나 '최고예요' 혹은 '슬퍼요'나 '화나요' 등 단 하나의 감정을 가진 단순한 인격으로 표상된다. 이모지는 간단한 기호로 환원된 우리의 인격이다. 그것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아요'와 '최고예요'일 뿐이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는 사유하는 주체가 아니다. 이모지 휴먼의 핵심은 붓질에 있다. 격정적인 붓질이야말로 매끄럽고 평온한 디지털 파라다이스가 삭제하려는 살아 있는 인간의 흔적일 것이다.

<숲의 주름> 현실을 접을 수 있다면 어느 주름 사이에선가 꿈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 현실은 단단하게 고정된 닫힌 세계가 아니며 다른 각도의 면을 발견하는 것은 주체의 몫이다.

<복숭아씨> 막 무언가 발언하려는 입술 사이에서 분홍색 숨이 나온다. 창조적 언어는 달콤한 세계의 언어를 상실하는 순간 발생한다. 시커멓고 단단한 복숭아씨는 존재의 순수한 욕망이다.

-이삿별

**김화현 Kim Hwahyun (b.19xx, 서울 거주)**

201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과 박사 졸업

2009 미국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이하 MICA), Hoffberger School of Painting 졸업, 석사학위 취득 (Fulbright 장학생)

200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개인전**

2023 *Sightings*/목격담, 미학관, 서울

2022 *Music as Disguise*, 오시선, 서울

2022 *The Foyer*, 나리화랑, 서울

2021 *Girls, Rock the Boys*, 프로젝트스페이스영등포, 서울

2020 <전지적 여성향 시점> *Girl, Un/Interrupted*, 스페이스XX, 서울

2017 *Lords, Poets and Philosophers*, 갤러리 구, 서울

2016 <위반의 집>,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2014 *Stolen Hearts*, 갤러리 구, 서울

2008 <傳身>, 아트포럼 뉴게이트, 서울

2006 <美人圖>, 갤러리 진선, 서울

**주요 그룹전**

2023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노적봉미술관(비엔날레 2관), 목포

2023 *Shifting Terrain: Korean Painting from the Spencer Museum of Art Collection, 1800–2012*, 스펜서미술관(Spencer Museum of Art, Kansas University), 로렌스 시, 캔자스주, 미국

2023 <우리는, 어디에, 있나>, 스페이스 미라주, 서울

2022 <생생화화>(경기문화재단 창작지원 선정전시), 영은미술관, 광주

2022 <합의형 수묵>, 해움미술관, 수원

2022 2021 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스쿨 결과보고기획전<날것>,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22 <은지야, 넌 언제부터 태권도 학원에 그만 다니기 시작했니?> 아트잠실, 서울

2021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심상소학교(비엔날레 3관), 목포

2021 Pride Expo 부대전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서울

2020 <남성모양>, 스페이스나인, 서울

2019 <나나랜드>, 사비나미술관, 서울

2018 서울시립미술관 제4기 시민큐레이터 전시<누가 그녀를 모함했나?>,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17 퍼블릭아트 지 선정 <뉴 히어로>, JCC 아트센터, 서울

2014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작품소장**

2021 <群仙圖>(2017) 서울시립미술관

2019 <詩情>(2012) 미국 캔자스대학 소재 스펜서미술관(Spencer Museum of Art, Kansas University)

**출판**

단행본 『위반의 집』, 그래파이트온핑크: 서울, ISBN 979119552536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장서)

**송지혜 Song Jihye (b.1980, 바레인 거주)**

2010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졸업

2004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23 낮과 밤 사이에서, Ingahee Gallery, 서울, 한국

2022 See Through, Ingahee Gallery, 서울, 한국

2021 금단의 복숭아, Rund Gallery, 서울, 한국

2020 아슬아슬, Artbit Gallery, 서울, 한국

2018 대롱대롱, 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성남, 한국

2006 homan being island, 진흥아트홀, 서울, 한국

**주요 그룹전**

2024 Window 24-34 Drawing Streaming, gallery meilan, 서울, 한국

Read SoRi 2024 진(Zine)열람전, space illi & 소현문, 서울, 수원, 한국

2023 Green Luminance, gallery hoho, 서울, 한국

2021 낙관주의자들, 아트센터 예술의시간, 서울, 한국

2017 코쿤 2017, space k, 과천, 한국

성남청년작가전3<풍경>, 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성남, 한국

Emergent Property, 키미아트, 서울, 한국

Less More, 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성남, 한국

2016 두개의풍경 하나의세계, 주중한국문화원, 북경, 중국

2011 out of shadow, 세브란스 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Full of Starving, 갤러리P1, 서울, 한국

2010 By Your Side 호림박물관1F, 서울, 한국

송장예술제, 송장예술구, 송장, 중국

2009 식사의 의미-여덟가지이야기, 고양아람미술관, 고양, 한국

Cutting Edge, 코엑스, 서울, 한국

artist charity, 아르코미술관, 서울, 한국

파괴적인성격Ⅲ, space-da, 북경798, 중국 (3인전)

시각유희, 한중문화원, 북경, 중국

**레지던시**

2008~2009 상원미술관(ShangWuan Art Museum)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작가, 북경, 중국

2006~2008 경희대학교북경레지던시프로그램 입주작가, 북경, 중국

**작품소장 및 수상**

2021 성남시청 예술창작전시지원 선정

2020 서울시청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사업 선정

서울특별시청 박물관과, 성남문화재단, 코오롱, 중국북경상원미술관 작품소장 외 개인소장

**이셋별 Li Setbyul (b.1970, 대전 거주)**

1998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2002년 동대학원 졸업

**주요 개인전**

- 2024 글리치 파라다이스 Glitch paradise, 갤러리 에스피, 서울
- 2022 녹색 눈 Green Eyes, 드로잉룸, 서울
- 2021 레이어스케이프 Layerscape, 인디프레스 갤러리, 서울
- 2019 녹색에코 Green Echo,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 2018 녹색에코 Green Echo, 아트비트 갤러리, 서울
- 2017 녹색에코 Green Echo,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 2016 가장 욕망하는 드로잉 The most desired drawing, 갤러리 담, 서울
- 2014 인터페이스 풍경 Interface scenery, 자하미술관, 서울
- 2013 녹색 파국 Green catastrophe, 아리랑 갤러리, 부산
- 2012 서술되지 않은 Unnarrated, 아트스페이스 루, 서울

**주요 그룹전**

- 2024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 대구미술관, 대구
- 2023 불편한 미술관: 우리는 그들에게, 소다 미술관, 화성
- 2022 친숙한, 기이한,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 2022 우울의 여러가지 빛깔, 바로크적 드로잉, 무안오승우미술관, 무안
- 2022 튜링 테스트, 서울대미술관, 서울
- 2020 불온한 몸, 이식된 것들의 생태, 세마창고 4,5전시실, 서울
- 2020 나 자신의 노래, 사비나미술관, 서울
- 2019 현대회화의 모험: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 2019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더 적음과 더 많음, 여수엑스포 D전시홀, 여수
- 2019 가족의 정원,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 2018 아직 살아있다,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 2018 경기 아카이브\_지금, 경기상상캠퍼스, 수원
- 2017 상상공작소, 매직월드,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 2015 투명한 얼음의 눈물,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2014 오끼나와, 타이완, 제주 사이; 제주의 바다는 갑오년이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2013 스토리텔링: 다섯 편의 이야기,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레지던시**

- 2020,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 2018,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 2017,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 2010, 갤러리 포스, 베이징, 중국

**작품소장**

- 대구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부산현대미술관,
- 청주시립미술관, 성남큐브미술관, 사비나미술관, 자하미술관